



# 가톨릭마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4년 3월 24일

제2610호



성지 주일 © 사진 / 양병주 분도

## 주일 진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행 렬

따름 노래 ◎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님, 높은 데서 호산나!

입성 기념 복음 마르 11,1-10 또는 요한 12,12-16

따름 노래1 ◎ 히브리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환호 소리, “높은 데서 호산나!”

따름 노래2 ◎ 히브리 아이들이 옷을 길에 깔고 외치는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그리스도 임금님께 드리는 찬가

◎ 영광 찬미 영예 모두 주님께. 그리스도 임금님 구세주! 아이들의 환호 소리, 호산나, 호산나!

입 당  
미 사

본 기도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 복음 마르 14,1-15,47 또는 15,1-39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진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장등본당 주임

## “저는 아니겠지요?”

은돈 서른 닢과 자신이 3년 동안 모셔온 스승을 맞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체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니다. 쓰디쓴 그 잔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시지 않고 결국 죽음의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준 그 자유가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국 제자에 의해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받은 인간이 행한 행동이 결국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묻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좋으련만 그 말이 스승을 두 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피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넘겨받은 그 자유로 참 많이도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나 십자가에서 떨어질까 겁이 나는지 다시금 그 못 자국에 망치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유다처럼 묻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우리의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결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셨는지,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넘겨준 그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참 많이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다시 매달 필요도 없고,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저는 아니겠지요?” 이 말은 적어도 나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서 힘겹게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성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넘겨받은 그 자유로 참 많이도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나 십자가에서 떨어질까 겁이 나는지 다시금 그 못 자국에 망치질을 해댑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 교구 사제 인사발령 및 담당 사제 임면

▶ 교구 사제들의 인사를 3월 13일부로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부임일: 3월 18일(월)

| 사제명 | 임       | 면         |
|-----|---------|-----------|
| 이현우 | 요 양     | 하청본당 주임   |
| 김동윤 | 하청본당 주임 | 사파동본당 1보좌 |

● 대학생연합회 창원지구 담당 사제 임면

| 주 관  | 단 체    | 구 분 | 임      | 면      |
|------|--------|-----|--------|--------|
| 청소년국 | 대학생연합회 | 창원  | 남하늘 신부 | 김동윤 신부 |





#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2) 성지 순례: 그리스 편

나현미 캐롤린/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교구 성경사목부의 기획과 주관으로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사도 바오로의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이던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월 25일 자 '가톨릭마산'(교구보) 게재된 '튀르키예 성지 순례'에 이어 이번 3월 24일 자에는 '그리스 성지 순례'가 게재됩니다.

##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는 역사의 현장, 네아폴리스

현재는 카발라라고 불리는 활기찬 항구 도시, 그 문턱에 자리한 바오로 기념성당과 유럽 선교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을 기리는 성당 외벽의 성화는 바오로의 불타는 선교 의지와 그날의 감동을 보여주어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바오로 기념성당

바오로는 로마 시대의 전형 도로인 에나시아 국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 북부 지방에는 필리피,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교회를 차례로 세웠고, 남쪽의 코린토로 내려가 네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 ·성문 밖 강가에서 리디아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정 교회의 출발이 된 필리피

맑은 물이 힘차게 흐르는 지각티스 강가, 리디아의

세레 터에는 마침 예닐곱 명의 소박한 미국 순례단의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간 초기 필리피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날 아침 강물에 씻기고 비워져 오롯이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와 실라스의 이웃 사랑과 전교의 진수를 보여준 필리피 감옥 터를 둘러볼 때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도 16,30)**라고 외치는 간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 ·전교 때문에 적대자들에게 쫓겨서 서둘러 짐을 싸던 바오로의 슬픔이 느껴지는 테살로니카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교인들에 대한 바오로의 염려와 걱정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수고와 희생과 염려를 하는지 반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살로니카의 수호성인, 성 데메트리우스 정교회 대성당에서 우리 본당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호를 왼쪽에서부터 긋던, 그들이 오른쪽에서부터 긋던 하느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 ·현기증 나도록 높고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 선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들, 메테오라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대들은 거기에 서 계십니까? 침묵과 기도, 청빈의 영성을 찾아온 정교회 수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보고 우리도 그 가파른 수도원의 돌계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 ·드디어 성지 순례의 정점 아레오파고스에 서다

아테네의 고지대에 자리한 아크로폴리스에 자리한 파르테논 신전은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러 나라의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는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바오로의 외침이 큰 북소리처럼 가슴을 자꾸만 울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서서 듣나이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 합니다.”(사도 17,23)**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사도 17,27)**

이번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까지 우리들의 순례길을 늘 보살펴주신 하느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가족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피에서 단체사진



#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이현숙 아마파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천운으로 경미한 부상에 그치기도 하지만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어느 날 멀쩡히 출근한 내 가족이 졸지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두 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자.

안전보건공단이 수집한 재해 사례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맞음, 넘어짐, 무너짐, 뒤집힘, 화재, 폭발, 질식, 중독, 미끄러짐, 베임, 찢림, 감김, 절단 사고 등으로 대별된다. 그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작업발판이나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 하역 작업 중 트레일러에서 추락, 가지치기 작업이나 벌목 작업 중 추락, 엘리베이터 수리 중 추락, 선박 용접 작업 중 추락, 화물 운반 중 리프트에서 추락, 지붕 작업 중 추락, 고층아파트 유리창 교체 중 추락 등 떨어짐 사고다.

기타 유형으로 회전 기계 정비 중 끼임, 지게차 출하 작업 중 끼임, 프레스에 끼임, 하역 작업 중 지게차와 냉동 탑차 사이에 끼임, LPG 선박 건조 중 화재, 산소절단기로 선박 절단 중 화재, 집진기 청소 작업 중 폭발과 화재,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로 인한 매몰, 굴착매설 작업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폭설로 인해 붕괴된 구조물에 깔림, 선박 용접 작업 중 감전, 화물 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 기관차에 치임 등이 있다. 사고 불문하고 당시의 상황들은 하나같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명백한 인재마저 불의의 사고로 치부하면서 더 이상 강 너머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나 안전난간 강화 같은 사전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작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엄수하고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금력 열세로 인해 기술개발 투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만성적인 저생산성과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저고용안정성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과 장비와 시설에 비용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영주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자신의 골육에게도 기꺼이 권할 만한 작업 환경인지 여부가 첩첩한 산업재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다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살아서 산재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터로 갔다. 죽으려고 간 게 아니다. 이 모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 부품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언제까지 배신하려는가.





# 십사일 다시마



이현숙 나탈리아/ 창원분회



저는 찢어 말린 다시마 잎과 다시마 환을 생산하는 가톨릭 농민회 회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80년에 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둔감해지면서 시력과 기억력이 급감하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스치는 바람에도 이가 시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골반뼈가 뒤틀려져 그 통증으로 인해,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미사를 꼭 가야 하는 나를 남편과 아들이 양쪽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 부축해야 걸을 수 있었고, 성당에 가서도 내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나이 겨우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뼈와 피를 건강하게 해 주시면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고, 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해초가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이 강하게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사전의 '혈액'에 대한 자료를 펼쳐 '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한 피는 우리 몸에서 90일을 기능하며, 건강한 피가 인체의 필수 호르몬을 생성하여 튼튼한 뼈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주성분이 미네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마는 바닷물이 강물처럼 흘러 미네랄 유입이 잘되는 깨끗한 완도산을 구입하여, 분말 형태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몸의 변화와 함께 생활에 의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건강과 함께 시작한 일이 이제 사업이 되어 “맑은 바다 해초 식품”이라는 상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다시마 환은 6월부터 채취한 다시마 잎을 햇볕에 말려 자연건조합니다. 다시마를 깨끗한 물에 담가, 찢어 5일간 그늘과 햇볕에 번갈아 말려 자릅니다. 자른 다시마 잎은 씹는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 몸에 흡수가 잘되도록 분말로 만들어 다시마 98%, 벌꿀 2% 혼합하여 녹두알 크기 환으로 만듭니다. 14일간의 자연 공정 과정을 거치기에 “십사일 다시마”라고 상품명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으로 97년 창업하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시마는 다시마가 지닌 미네랄의 작용으로 손 저림, 입 마름, 손톱이 잘 부러짐, 흠이 잘 생김, 만성 피로, 불면, 기립성저혈압,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저하 및 항진, 생리통,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된 다시마는 무엇보다 혈액과 관련된 이상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톨릭우리농 운동”에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다시마가 필요하신 분들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신체의 활력을 더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한 음식으로 맛의 기쁨을 누리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성유축성미사

일시: 3월 28일(목) 10:30

장소: 부산 남천성당

구병진 베드로 신부

금경축 행사

일시: 4월 7일(주일) 10:30

장소: 명서동성당

교구/본당

성경 교육봉사자 교안발표

일시: 3월 26일(화) 14:00/ 19:30

장소: 교구청

32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시: 4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8864·7067/ 010·9113·7062

청년 성서 '에파타'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 공부와 나눔에 관심 있는 청년

신청: <https://forms.gle/syBoKbvEen9dCSAJ7> 및 QR코드로 신청

위원회/기관/단체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http://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http://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http://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건강한 가족 공동체 부모교육

일시: 4월 7일(주일)부터 8주간, 매 주일 10:00~11:30

장소: 젊음의집/ 대상: 개인 및 주일학교 자모회

문의: 젊음의집 055·255·8295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일시: 4월 16일(화)~17일(수) 09: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파티마 홀(5층 강당)

수강료: 4만 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및 문의: 055·270·1648/ 1650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수증 발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http://www.holyfcac.or.kr)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5월 20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신자

문의: 010·3191·8315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해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부활 십자가 바게트 판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나눔(진해장애인복지관 내 보호작업장)에서 부활절 십자가 바게트를 주문 및 판매합니다.

문의: 055·540·0483, 010·5889·0480

가격: 3천 원(1개당)

크기: 가로 11cm×세로 50cm

가격: 1천 원(1개당)

크기: 가로 12cm×세로 12cm

교구 성령세미나

일시: 4월 1일(월)~5월 27일(월) 9주간 19:00~22: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전주교구 성령봉사회 담당)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원선동본당 주임)

배형진 야고보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영성 담당)

박희전 루케지오 신부(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前 전국성령 담당 신부)

김향숙 마틸다 회장(전주교구 성령봉사회장)

강철현 미카엘 신부(산호동본당 주임)

박형호 미카엘 신부(옥포본당 주임, 성령봉사회담당)

주제: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호세 10,12)

문의: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10·5247·9900

| 성령기도회 | 일 시             | 장 소               | 주 제       | 강 사                    | 미사 주제 | 문 의           |
|-------|-----------------|-------------------|-----------|------------------------|-------|---------------|
| 교 구   | 3월 25일(월) 19:00 | 중앙동성당             | 성령기도회의 완덕 | 김기화 포카스 도밍고 신부(서울대교구)  |       | 010·5247·9900 |
| 청 년   | 매주 (수) 19:30    |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 성령기도회     |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       | 010·6667·7809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지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생명공동체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6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4. 3. 24.



## 광주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



2024학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가 3월 7일 오전 11시에 김정용 베드로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교구에서는 곽태원 에보디오(여좌동본당) 신학생이 입학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김형렬 요셉 신부(교구 성소국장)를 비롯하여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여좌동본당 주임)가 함께 참석하여 신학생의 입학을 축하하였다.

## 문산본당 다윗의 적루 Pr. 3,000차 기념 주회

문산본당(주임: 서성민 미카엘 신부) 순결하신 어머니 Cu. 소속 다윗의 적루 Pr.(단장: 이옥순 헬레나)은 2월 20일 3,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다윗의 적루 Pr.은 1965년 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단원들은 40대에서 70대 남녀 혼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의 적루 Pr. 단원들은 3,000차 주회를 맞아 기도를 통해 전 통과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이 충만한 Pr.으로 그리고 뿌리 깊은 문산성당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 성가정보당(구 서포선교본당) 사순 시기 성령세미나 실시



성가정보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은 사순 시기 동안 성령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성령세미나는 본당 신자들의 일치와 사순 시기를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본당 승격 후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령안에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본당 신자 60명이 참석하였다. 본당 신자들은 성령세미나를 통해 열정 넘치는 강의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체험하였다. 더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1,45)라는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기로 봉헌하였다.



## 향심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3

윤행도 가톨릭 신부/ 월영본당 주임

힘과 통제의 욕구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1~20년 전만 해도 시나 도 경계를 넘어갈 때 경찰 검문소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당신은 경찰관으로서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가 현행범도 아니고 당신에게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그런 권리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이놈 봐라!’는 표정을 지으며 차적 조회를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이것저것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면 저를 보내며 형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관을 불러 세우고는 “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게 됩니까?”라며 따집니다. 경찰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거수경례까지 합니다.

언젠가 제가 자주 가는 피정집 수녀님들을 모시고 남해-창선대교를 건너가다가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여느 때처럼 하는 것을 보고는 수녀님들이 그냥 면허증 보여주면 금방 끝날 텐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위세 부리는 모습이 꼴사나워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숨은 동기’를 살펴봤더니 힘과 통제의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갈비였을 정도로 체구도 작고 약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이나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힘을 길러 언젠가는 다른 아이들을 놀려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제로 서품되고 나니 제 뒤에는 가톨릭교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 그것을 믿고 권력기관인 경찰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숨은 동기’를 찾아내고 난 뒤부터는 경찰관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운전면허증을 보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인사까지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생존의 욕구, 애정과 존중의 욕구, 힘과 통제의 욕구는 우리의 내면(무의식)에 자리 잡고 앉아 한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치관 등을 통제하고 조정(지배)하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좋았을 때, 사실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세 가지 욕구 중 하나를 의식 속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감정 변화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 중 참회 예절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 감정 변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욕구는 무의식 속에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치유자이신 성령만이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관상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상기도 중에 일어나는 은총 중의 하나가 내적(무의식) 치유입니다.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저희 인간이 초래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고,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눈앞의 편리와 편익만 보고 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파괴와 착취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기보다는 훼손하는 데 몰두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오니,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더불어 사는 영성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소서.”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여는 기도 중에서)





## 부활은 창조로부터 :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의미

지금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을 개인의 구원에 한정하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창조로부터 부활로 이어지는 하느님 사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가톨릭 생태 영성가로 유명한 토마스 베리 신부는 그리스도교가 생태적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원죄 교리에 치우친 구원관을 창조신앙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너무나 원죄에 집중하면서 하느님을 초월자로서만 인식하여, 창조 이야기의 풍요로움과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계시의 진리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고 인간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 종교가 되었다고 토마스 베리 신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가장 먼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의 완성 또한 함께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인간만이 아닌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 모두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은 단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닌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건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로마 8,21)라는 사도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당신 이외의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있어서 창조된 세상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있게 한 존재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우연성(contingency)'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우연성'이라는, 필연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은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나아가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창조는 하느님의 선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자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이 표현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느님의 책이 됩니다. 또한 각 피조물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고, 고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 존재를 고유하게 그 모습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된 존재들은 창조주의 원의에 따라 각자 구별되고 재생산될 수 없는 고유한 모습과 선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피조물들의 '개별성(haecceity)'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피조물의 개별성은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하기에 인간은 각 피조물을 관상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신앙과 관련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에 한정되는 구원의 의미를 '말씀을 통한 창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기간 '하느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Cur Deus Homo?*'라는 신학적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또 다른 영성의 전통인 프란치스칸 전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성자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으로 그분의 결정은 외부의 필연이 아닌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죄가 '성자의 육화'를 요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성자의 육화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위해 창조계획 속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성자는 모든 피조물 완성의 예형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창조계획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완벽한 창조의 계획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기에 성자께서 육화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자의 육화'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단지 원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닌 하느님 계획에 따른 모든 피조물의 완성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은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 인간만을 중심으로 여기는 세계관을 극복하고,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상호연결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확장된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신앙의 의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50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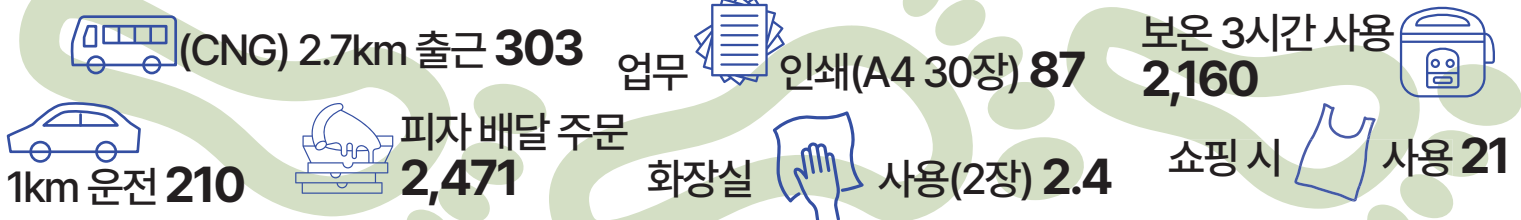
## 실천사항 6 다시쓰기\_Reuse

### '탄소발자국'을 아시나요??

**'탄소발자국'**이란, (= 탄소 이력)

**우리가 일상 생활 중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한 것**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TV를 보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탄소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아래는 여러 발자국들이다.

(단위: g)



YTN사이언스  
[사이언스포럼]  
2050년 탈탄소 사회로의 길

## 함께! 해요, 제로 웨이스트

###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모든 제품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옷 수선 등을 SNS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것.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함께 가요, 제로 웨이스트 샵

#### 1. 제로웨이스트샵 비움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5 주공상가 2층

거제: 경남 거제시 옥포로23길 5 기부나눔마켓 리본 옆

ㄴ. 그리니지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43번길 10 2층

ㄷ. 진주제로웨이스트온: 경남 진주시 비봉로 6 2층

ㄹ. 천연제작소: 부산 동래구 석사로 26 1층(온라인샵)



## 함께하는, 마산교구!

2023년 12월 기준 마산교구 내 생태 관련 분과를 운영하는 성당은 명서동·사천·산청·완월동성당으로, 위 성당들의 여러 활동 중 사천성당과 산청성당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천성당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사순실천표 준비
- 본당 주보에 격주로 "찬미하소서"를 인용한 글 게재
-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회개" 주제로 사순특강 2회 실시

### 산청성당

- 본당 주보에 "줍깅"을 소개 후, 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반중심으로 실천
- 본당에 폐의약품, 폐건전지, 텀블러 상시 수거
  - 폐의약품: 산청의료원 반납
  - 폐건전지: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시 새 건전지나 쓰레기봉투로 돌려줌(지자체마다 다름)
- 받은 물품을 본당 주보 환경 퀴즈를 통해서 본당 신자들에게 제공
- 텀 블 러: 필요한 가정에 다시 나눔함



산청 성당 활동 모습

